

홍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 시 준*

-
- I. 머리말
 - II. 국내에서 한성정부 수립
 - 1. 한성정부 수립
 - 2. 한성정부를 가지고 상해로 망명
 - 3.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통합
 - III. 임시정부 국무령
 - 1. 임시정부의 파국과 은거
 - 2. 대통령 탄핵과 국무령제
 - 3. 국무령 취임
 - IV. 임시의정원 의장
 - 1. 임시정부로 복귀
 - 2. 통일의회 의장
 - 3. 한국 후 비상국민회의 의장
 - V. 맺음말
-

I. 머리말

충청북도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와 관련이 깊다. 많은 충북인들이 임시정부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것이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申圭植, 국무위원과 광복군 총사령 대리를 지낸 黃學秀, 국무위원 柳子明,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가 반임시정부 운동을 주도하였던 申采浩 등이 모두 충북인이었다. 이외에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한, 그리고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인 국무령과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활동한 충북인이 있었다. 洪震(1877 ~ 1946, 호 : 晩悟)이란 인물이다.

홍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본적은 충북으로 되어 있다.¹⁾ 홍진을 서울 출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충북인으로 활동하였다. 대한제국의 法官養成所를 졸업한 홍진이 檢事시험에 합

*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홍진의 본명은 洪晁憲이다. 그는 서울 車洞(현 서소문)에서 태어났지만, 일제의 각종 정보자료에는 그의 본적을 충북 淸州郡 加德面 仁次里, 또는 永同郡 永同邑 稽山里라 하고 있다.

격하여 첫 번째로 발령받은 곳은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재판소였다.²⁾ 그는 1906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충주에서 검사로 활동하였다. 또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후,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에서도 줄곧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³⁾

홍진은 1919년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성정부를 품에 안고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 법무총장· 내무장 등을 맡기도 하였지만, 행정수반인 國務領과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이끌었다. 임시정부 27년 동안 정부의 행정수반과 입법기관의 수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은 홍진이 유일하다.

홍진은 그의 위상이나 역할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에 들어서야 홍진의 일대기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이 글은 홍진이 임시정부에서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한 실상을 언급하고, 이후 임시정부에서 행정수반인 국무령,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의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살펴보고 한다.

II. 국내에서 한성정부 수립

1. 한성정부 수립

1919년 3월 1일,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는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 독립선언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니, 독립국을 세워야 했다.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국’을 상징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서울에서 ‘漢城政府’가 수립되었다. 한성정부 수립을 주도한 인물이 홍진이었다.

홍진이 3·1운동 주도세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3·1운동이 발발하기 전에는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제의 정보자료에는 홍진이 3·1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⁵⁾ 어쨌든 홍진은 3월초부터 서울과 인천을 중심

2) 『舊韓國官報』 1906년 12월 13일자.

3) 홍진은 1919년 4월 30일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申圭植·李命教·俞政根과 함께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줄곧 충청도 의원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임시의정원 1, 2005, 25쪽).

4) 홍진에 대해서는 1996년에 홍진선생기념학술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 한시준의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담구당)이란 저서가 출판되었다.

으로 李奎甲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규갑(1888~1970)은 충청남도 아산 사람이다. 協成神學校와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을 졸업한 이규갑은 충남 공주의 永明學校 교감을 지낸 인물로, 비밀결사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다. 3·1운동 당시에는 평양의 南山岬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다. 홍진과 이규갑은 평양에서 만나 교류하였던 것 같다. 홍진이 열한살이나 위였지만, 이들은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후일 상해로 망명할 때는 의형제를 맺기도 하였다.

홍진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규갑은 이러한 생각을 그의 회고에서 “이것이 제대로 統帥계통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고 당장 독립이 될 듯이 흥분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산발적인 운동인지라”하고 있다.⁶⁾ 홍진과 이규갑은 3·1운동을 보면서 지휘계통을 갖는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위해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홍진은 이규갑과 함께 3월초부터 각계의 인사들을 접촉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사람을 접촉하는 일은 분담하였다. 홍진은 주로 현직 검사로 있는 韓聖五· 변호사 權赫采 등 법조계 인사들을 만났다. 유교계 인사들과도 접촉하였다. 충남 대전 유성 사람인 金奎(본명 金敎勳)를 만나 유교계 대표로 참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김규는 홍주의병에 참여한 李晩植· 李容珪 등과 崔益鉉의 문인으로 의병에 참여하였던 전라도 지역 유림들을 참가시켰다. 이외에 자금조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안 통하는 곳이 없을 정도의 팔방미인으로 알려진 韓南洙도 참여토록 하였다.⁷⁾

이규갑은 주로 기독교 인사들을 접촉하였다. 장로교의 張鵬· 朴容羲 등을 만났고, 이들은 기독교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외에 천도교 대표가 된 安商憲을 비롯하여, 金思國· 金裕寅 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도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 가입하라’며 참여시켰다.⁸⁾ 학생조직은 나중에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역할을 맡았다.

홍진은 이규갑과 더불어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의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였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비밀독립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비밀독립운동본부란 이들의 활동거점이자 연락처였고, 내수동에 있는 한성오의 집이었다. 일제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집을 본부로 삼은 것이다.

한성오의 집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월 17일 홍진과 이규갑을 비롯하여 이교헌· 윤이병·

5) 국가보훈처, 『大韓民國臨時政府關聯 要視察人名簿』, 1996, 116~117쪽.

6) 李奎甲, 「漢城臨時政府 樹立의 顛末」, 『新東亞』 1969년 4월호, 179쪽.

7) 高珽休, 「世稱 漢城政府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韓國史研究』 97, 1996, 193~194쪽.

8)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 資料集』 19, 1994, 30쪽.

최전구·김규·한남수·김사국·민강 등이 한성오의 집에 모였고, 이 회합에서 임시정부의 조직을 논의하였다.⁹⁾ 기독교·유교·천도교를 비롯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통일된 의견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어냈다. 정부의 이름은 ‘한성정부’로, 정부수반의 명칭은 ‘집정관총재’로, 각원은 ‘총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집정관총재 李承晩을 비롯한 각부 총장·평정관·파리강화회의 대표 등을 선출하고, 정부의 헌법인 約法도 제정하였다.¹⁰⁾ 이로써 ‘한성정부 조직안’이 마련되었다.

‘한성정부 조직안’을 마련한 후, 각 지역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이를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3도대표자대회의 소집이 추진되었다. 홍진은 13도대표 소집 책임자로서 이규갑·김규·閔蘆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의 하나는 각 지역대표들을 만나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다. 시기는 4월 2일로 결정되었고, 장소는 인천 만국공원으로 정하였다.

4월 2일 13도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만국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3월말 4월초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때로서, 일제의 탄압과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던 때였다. 지역대표로는 인근지역에서만 참석하였고, 주로 종교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13도대표자대회는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 것이었다. 이미 마련된 ‘한성정부 조직안’과 헌법인 약법을 통과시키고, 한성정부 수립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13도대표자대회였다.

홍진은 13도대표자대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종결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회가 개최되면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남수가 “현재로서는 강화회의의 상황은 물론이고, 上海의 사정도 알아본 뒤에 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¹¹⁾ 한성정부의 수립을 결정하고 선포하기에 앞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성정부’를 선포하는 문제는 상해의 사정을 알아본 후 결정짓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 한성정부를 갖고 상해로 망명

13도대표자대회를 개최한 직후, 홍진에게 상해에서 왔다는 사람이 찾아왔다. 안상덕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洪鎭儀였다. 그러나 홍진은 상해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국내에서 李春塾 등과 함께 천도교측과 연계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던 인물이었

9) 李奎甲, 「漢城臨時政府 樹立의 顛末」, 177쪽.

10) 雲南李承晩文書編纂委員會,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4, 1998, 26~29쪽.

11) 國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 資料集』 19, 26쪽.

다.¹²⁾

당시 국내에는 홍진과 이규갑이 주도한 것 외에, 천도교측에서도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천도교측의 임시정부 수립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홍진의란 인물은 천도교측 사람이었다. 그가 홍진을 찾아 온 것은 두 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을 통합해 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양측의 통합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홍진은 상해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남수를 파견하였다. 한남수는 4월 8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한남수가 상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해에는 국내에서 조직한 ‘임시정부안’이 도착해 있었다. 4월 8일 姜大鉉이 경성독립단본부의 임시정부 각원 명단과 헌법초안을 가지고 상해에 도착한 것이다.¹³⁾ 그것은 홍진이 추진하고 있던 한성정부와는 다른 것으로, 4월 17일 평북·철산의주 등지에서 전단으로 살포된 新韓民國政府의 안이었다.

홍진은 상해에 파견한 한남수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남수와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면 ‘인삼시세가 나쁘니 사지 말라’는 전보를, 수립이 안되었으면 ‘인삼시세가 좋으니 사라’는 전보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한남수가 보내오는 전보 여하에 따라 한성정부의 수립을 계획대로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한남수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당시 한남수는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4월 16일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또 경찰의 단속이 엄중하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을 밀정으로 알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었다. 그는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인삼시세가 나쁘니 사지 말라’는 전보를 보낼 수 있었다.¹⁴⁾

홍진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었다. 더욱이 상해에서 왔다면 자신을 찾아온 홍진의란 인물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서둘러 상해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13도대표자대회에서 결정된 ‘한성정부 조직안’을 국민대회를 통해 선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국민대회 개최와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일은 玄錫七 등에게 인계하였다. 그리고 4월 15일경 이규갑과 함께 ‘한성정부 조직안’을 담배갑과 성냥갑 속에 감추어 상해로 향했다. 한남수의 전보를 받지 못하고 출발한 것이다.

홍진과 이규갑이 상해로 떠난 후, 학생조직에 의해 한성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13도대표자대회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주도자들이 상해로 떠난 후, 그 책임을 학생조직이 맡았다. 김사국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은 4월 23일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2) 李賢周, 「3·1운동 직후 國民大會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139쪽.

13)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臨政篇4, 1968, 207~208쪽.

14)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 資料集』 19, 63쪽.

13도대표자대회 명의로 된 국민대회취지서와 한성정부의 각원 명단, 약법, 선포문 등을 배포하였다.¹⁵⁾ 이로써 한성정부의 수립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홍진이 상해에 도착한 것은 4월 20일경이었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강대현이 가지고 온 ‘임시정부안’을 기초로 하여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홍진은 임시정부측과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수립되었지만, 국무총리 李承晩을 비롯하여 각원들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홍진과 이규갑이 상해에 도착한 후, 상해에는 적지 않은 파문이 일어났다. 이들이 ‘한성정부조직안’을 내놓자, 상해의 인사들은 당황스러워했다. 이미 국내에서 가지고 온 ‘임시정부안’을 토대로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는데, 홍진 등이 국내에서 수립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한성정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다.

상해측 인사들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다. 1919년 4월 22일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성정부의 수립은 인정하지 말고,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안을 가지고 온 洪鎭儀·李春塾·李鳳洙 등이 참여하였고, 이들이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대하여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것을 발표하지는 안을 제의한 것이다.¹⁶⁾ 이 제안은 한성정부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그대로 가결되었다.

한성정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홍진을 비롯한 한성정부측 인사들은 밀정으로 몰리는 곤경에 처하였다. 5월 6일 의정원 회의에서 홍진과 李命教 등이 ‘不良分子(일제의 밀정)’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이다.¹⁷⁾ 여기에는 홍진이 상해로 망명할 때 일제 경찰로 근무하고 있던 黃鉦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홍진의 이봉수 등이 한성정부측 인사들을 배제하지 제거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¹⁸⁾

이로써 홍진이 이규갑과 함께 국내에서 조직한 한성정부는 보따리도 풀어보지 못한 채 문혀버릴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일제의 밀정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곤경을 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교는 의정원 의원을 자진사퇴하였고, 홍진을 비롯한 한성정부측 인사들은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3.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통합

15) 李賢周, 「3·1운동 직후 國民大會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118쪽.

1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임시의정원1, 2005, 21쪽.

17) 국회도서관, 『韓民族運動史料』 中國篇, 1976, 29쪽.

18) 李賢周, 「3·1운동 직후 國民大會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149쪽.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와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고, 이외에 연해주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연해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大韓國民議會를 수립한 것이다. 대한국민의회는 명칭으로 보면 의회였지만, 소비에트제를 채용하여 행정과 사법의 기능을 갖는 임시정부였다.¹⁹⁾

임시정부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구로 수립한 것이었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임시정부였다. 세 곳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모두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통합운동은 4월 15일 노령측의 元世勳이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의 임시의정원을 병합하고 정부의 위치는 노령으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비롯되었다.²⁰⁾ 그러나 당시 상해측은 통합문제를 추진할 책임자가 없었다. 국무총리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총장들도 부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때문이었다.

통합운동은 노령과 상해의 두 정부 사이에 이루어졌다. 내무총장 安昌浩가 부임하면서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에 있던 안창호는 1919년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하여 6월부터 내무총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직도 대리하였다. 이로써 상해의 임시정부는 안창호를 비롯하여 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갖추었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양측의 통합은 정부의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합의 방법과 절차, 통합정부의 주도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안창호는 부임한 후 노령측과 통일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성정부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통일방안은 노령이나 상해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되어야 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대전제는 민족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어느 정부냐 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한성정부의 존재가 대두된 것이다.

상해측에서는 상해와 노령의 정부는 모두 없애고,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노령측에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상해와 俄領에서 설립한 정부들은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대표가 민족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고 한 것이다.²¹⁾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13도대표들에 의해 수립됨으로써 민족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이 그 명분이었다.

이로써 한성정부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해의 임시정부에서는 한성정부를 인정하기 않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한성정부가

19)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의 성립과 조직」, 『韓國學報』 46, 1987, 147쪽.

20)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98쪽.

21)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1, 858쪽).

노령과 상해의 임시정부 사이에 통합운동이 추진되면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상해측의 안은 곧바로 노령측에 전달되었다. 당시 상해에 와 있던 원세훈에게 이러한 방안이 전달되었고, 이어 노령에도 사람을 보냈다. 안창호는 내무차장 玄楯과 金聖謙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하여, 노령의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²²⁾

노령측에서도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룬다는데 찬성하였다. 안창호가 보낸 협상안을 받고, 文昌範·李東輝를 비롯한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은 8월 30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성정부를 봉대한다’는 전제하에 통일을 이루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대한국민의회의 해산을 선포하였다.²³⁾ 자신들이 수립한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한다는 형식으로 상해의 임시정부와 통합을 결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노령·상해·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의 통합이 실현되게 되었다. 통합의 원칙과 방법은 한성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것, 정부의 각원은 한성정부의 각원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두고,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한다고 하였다. 세 정부의 통합을 위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집정관총재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개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해 통합정부가 구성되었고, 1919년 9월 11일 통합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내무총장 : 이동녕, 외무총장 : 박용만, 군무총장 : 노백린

재무총장 : 이시영, 법무총장 : 신규식, 학무총장 : 김규식

교통총장 : 문창범, 노동국총판 : 안창호²⁴⁾

이는 한성정부 각원 그대로이다. 다만 집정관총재라는 명칭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로써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이후 노령과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뻔 하였던 한성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다시 되살아났다.

Ⅲ. 임시정부 국무령

22) 『獨立新聞』 1919년 9월 6일자. 「我政府特派員의 一行」.

23)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107쪽.

24) 『獨立新聞』 1919년 9월 16일자. 「新內閣成立」.

1. 임시정부의 파국과 은거

통합을 이룬 후,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또 독립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중추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군대를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한다는 목표아래 군대편제 및 군사간부 양성·만주지역 독립군 단체들을 통할하기 위한 각종 군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내무총장으로 국내와의 연계를 위해 聯通制·交通局을 설치 운영하였던 안창호는 정보기구로 地方宣傳部를 조직하여, 국내의 국민들과 연계하여 각종 비밀공작을 추진하였다.²⁵⁾

그러나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파란에 휩싸였다. 통합의 한 축인 노령의 대한국민의회가 ‘改造’를 이유로 통합을 파기하고 재건을 선언한 것이다. 노령측은 상해와 노령의 정부를 모두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하는 전제하에 통합에 찬동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하였는데, 상해의 임시정의원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통합도 한성정부의 봉대가 아닌 개조의 형식을 취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 ‘승인 개조’ 분쟁이 일어났다. 결국 노령측은 1920년 2월 대한국민의회를 재건하였고,²⁶⁾ 이로 인해 통합정부의 의미와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문제도 파란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위임통치문제는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申采浩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신채호는 위임통치를 청원한 인물을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 선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출을 반대한 것이다.²⁷⁾ 이승만이 통합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또다시 위임통치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이승만 여론과 세력이 형성되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불화와 반목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승만과 이동휘는 정치적 이념과 독립운동 노선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1918년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이동휘는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후에도 상해의 인사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고,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독립군들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소련과의 협력은 조국을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을 배경으로 한 외교독립노선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승만이 상해에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도 생겨났다.

이승만이 상해에 부임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불화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승만은 상

25)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정보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5, 2000, 74~76쪽.

26)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116~117쪽.

27) 한시준, 「申采浩의 在中獨立運動」,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233쪽.

해로 부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1920년 12월 상해로 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의견의 충돌이 잦았다. 잦은 의견의 충돌로 대립과 불신은 더욱 격화되어 갔다. 결국 이동휘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고, 군무총장 盧伯麟을 비롯한 각원들의 사퇴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사직한다며 남경으로 떠나가 버렸다.²⁸⁾

이승만은 사직을 반복하고, 임시정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는 몇몇 각원들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을 사퇴할 수 없다며, 사퇴한 국무총리와 각원들을 면직시켰다. 그리고 법무총장 申圭植으로 하여금 국무총리를 겸임토록 하고, 기호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부 총장들을 새로이 임명하였다.²⁹⁾ 서북지역 인사들을 배제하고, 기호지역 인사들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재조직 한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를 다시 조직하여 파란을 수습하려 하였지만, 임시정부는 더욱 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동안 정부 밖에서 이승만을 비판하던 인사들이 그 화살을 임시정부로 돌린 것이다. 이승만을 비판하던 세력들이 이승만에 대한 성토와 함께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서, 임시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1921년 2월 朴殷植·元世勳 등이 임시정부의 무능과 분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4월에는 申采浩 등 54명이 공동명의로, 그리고 朴容萬·申肅 등이 국내외 16개 독립운동 단체 명의로 이승만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하였다.³⁰⁾ 이들은 이승만에 대한 성토에만 그치지 않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불신임안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들의 압력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북경에서 모험단원 10여명이 상해로 왔고, 이들은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 각원의 총사직을 강요하면서, 비상수단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21년 5월 17일 ‘외교상의 긴급과 재정상의 절박’으로 인해 상해를 떠나는 敎書를 남기고 잠적하였다가, 5월 29일 비밀리에 미국으로 떠났다.³¹⁾ 이로써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면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가 파국으로 치달고 있을 때, 홍진은 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홍진은 상해로 망명한 직후 ‘불량분자’로 몰려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 1921년 5월 이승만이 신규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정부를 다시 조직할 때, 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³²⁾ 李東寧·孫貞道에 이어 제3대 의장이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식이 국무총리, 홍진이 의정원 의장을 맡게 되었다. 총부인이 정부와 국회의 수장을 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8)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보사, 1996, 156쪽.

29) 雲南李承晚文書編纂委員會, 『雲南李承晚文書』東文篇6, 1998, 342~354쪽.

30) 雲南李承晚文書編纂委員會, 『雲南李承晚文書』東文篇8, 1998, 263~310쪽.

31) 『獨立新聞』1921년 5월 31일자. 「大統領의 敎書」 및 「大統領離」.

32) 『獨立新聞』1921년 5월 14일자. 「議長選舉」.

홍진은 의장으로 선출된 후, 의정원의 조직을 정비하고, 의정원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나갔다. 당시 의정원의 상황은 임시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시정부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많은 인사들이 떠났고, 의원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홍진은 그동안 결원이 되었던 상임위원회 각 분과위원을 새로 보충하여 임명하면서, 의정원을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신규식과 함께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신규식·홍진 체제가 성립되었을 때, 국 제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나타났다. 1921년 4월 중국 廣東에서 孫文을 비상대통령으로 한 護法政府가 출범하였고, 11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군비축소문제를 다루는 태평양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신규식은 임시정부 전권대사로 광둥으로 가 손문과 접견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아울러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³³⁾

홍진은 태평양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주도하에 해군군비축소와 아울러 태평양 및 극동문제를 다루는 태평양회의에서 한국문제를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 것이다. 홍진은 의정원 의장으로 외교후원회를 조직하고 연설회 개최와 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국내 각 사회단체와 일본유학생·미주교포 등을 동원하여 회의참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케 하는 등 태평양회의에 총력을 기울였다.³⁴⁾

태평양회의를 통해 임시정부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태평양회의에서는 한국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태평양회의 참석이 좌절되면서 그 파장도 심각하게 불어닥쳤다. 1922년 2월 국무총리 신규식을 비롯하여 각원들이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또다시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홍진도 의정원 의장직을 사퇴하였다.³⁵⁾

이후 임시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국상태에 빠져버렸다. 내부적으로는 임시정부를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과 탄핵문제가 거론되었고, 임시정부 밖에서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추진되고 있었다. 더욱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임시정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홍진은 어떻게든지 파국상태를 수습하고,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홍진은 국민대표회의를 주장하는 세력과 타협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정원 의원들이 서북파와 기호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헌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로를 찾고자 했던 홍진은 크게 실망하였고, 더 이상의 방도를 찾기도 어려웠다.

33) 金喜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신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304~305쪽.

34)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100 - 108쪽.

35) 『獨立新聞』1922년 5월 27일자. 「議長辭免處理案」.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을 상해로 가져왔던 홍진은 어떻게든 임시정부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서도 의정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홍진은 “우리의 運動方略이 牢固한 조직체를 이루지 못하고 한갓 病的 상태에서 偏黨的 감정이 농후하여 갈 뿐”이라고 한탄하며, 1924년 4월 법무총장직을 사임하였다.³⁶⁾ 그리고 상해를 떠나, 남경 근처에 있는 鎮江이란 도시로 갔다. 이후 2년여 동안 진강에 은거해 있었다.

2. 대통령 탄핵과 국무령제

홍진이 진강에 은거해 있는 동안, 임시정부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단행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으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수립 당시 국무총리로 선출할 때부터 반대가 있었다. 반대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申采浩였다. 신채호는 1919년 4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국무총리로 이승만이 천거되자,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을 들어 “이승만은 李完用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라며,³⁷⁾ 그의 국무총리 선출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위임통치를 청원한 인물을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 선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919년 9월 통합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 반대운동은 더욱 격화되었다. 신채호는 10월 《新大韓》이란 주간신문을 창간하고, 이를 통해 이승만과 임시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비판은 이승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가해졌다. 신채호는 북경으로 옮겨갔고, 이후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反이승만과 反임시정부 운동을 계속하였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1920년 초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이 일어났다. 그해 5월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하여 차장들이 이승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신성한 독립사업에 불신성한 인물이 첫 자리에 있음이 정신상 불가” “외교와 미주사회 행정에 통일을 방해하여 대사진행에 지장”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총사퇴를 결의하였다.³⁸⁾ 자신들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이승만이 상해에 부임하였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임시정부를 방

36)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1호, 大韓民國6年(1924년) 9월 1일.

3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5, 158쪽.

38) <安昌浩日記> 1920년 5월 25일자(주요한, 『安島山全書』 상, 범양사, 1990, 254쪽).

치하자, 임시의정원에서 불신임이 제기되었다. 1922년 6월 安定根·車利錫 등이 “인민의 신망결여와 정국수습 능력부족으로 독립운동의 정체를 초래” “후계내각을 조직하지 못하고 무정부상태 초래”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³⁹⁾ 의정원뿐만 아니라 상해교민사회에서도 대통령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었다. 《상해타임즈》라는 등사판 신문을 통해 “이승만은 대통령다운 度量이 有한가 無한가” 등을 연재하며,⁴⁰⁾ 이승만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시비와 함께 사직을 종용한 것이 그러한 예다.

이러한 불신임은 탄핵으로 비화되었다. 1923년 4월 趙德律 등 12명 의원의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된 것이다. “아모 公務가 업시 임시정부 소재지를 離하여 政務澁滯하고 시국을 수습치 못함” “민국 원년 5백만원 외국공채의 支用 및 구미위원부 재정을 擅私함” 등이 그 이유였다.⁴¹⁾ 이들은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헌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하였다. 이후 의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와 헌법개정문제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의정원에 제출된 후, 이승만은 1924년 5월 李東寧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동녕내각이 출범하자 의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有故를 처리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 직무를 대리케 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이 정부소재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고로 결정하고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9월 1일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리한다는 것을 공포하였다.⁴²⁾

대통령 유고와 국무총리의 대통령직무대리가 공포되자, 이승만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맞섰다. 서신을 통해 이동녕을 질타하는 한편,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단한 것이다. 그는 하와이 교민단과 대한부인구제회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는 임시정부에 직접 송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⁴³⁾ 미주교포들이 임시정부로 직접 납부하던 人口稅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승만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은 이동녕내각은 그해 12월 상해 한인사회에 소요가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총사직하였다.

이동녕내각이 총사직하면서, 朴殷植을 대통령 대리로 한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1924년 12월 17일 대통령대리 겸 국무총리 박은식을 비롯하여 李裕弼(내무)·吳永善(법무)·趙尙燮(학무)·李圭洪(재무 겸 외무)·盧伯麟(교통 겸 군무)·金甲(노동총판)·金朋濬(국무원비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출범하였다.⁴⁴⁾ 각원 대부분이 서북파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이승만의 상해부임 때 사퇴하

39)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409~410쪽.

40) 『상해타임즈』는 상해타임즈사 명의로 발행된 등사판 국한문 혼용의 신문이다. 현재 제3부터 7호와 일요특간 8호부터 13호가 梨花莊자료에 전해지고 있다.

41) 『獨立新聞』1923년 5월 2일자. 「大局刷新實行案」 「李大統領彈劾案」.

42) 『獨立新聞』1924년 10월 9일자.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에게 임시정부에서 귀임하라고 재촉」.

43) 高珽杰,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 출판부, 2004, 241쪽.

44) 白巖朴殷植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巖朴殷植全集』6, 동방미디어, 2002, 635쪽.

였거나 이승만의 불신임을 주도했던 인사들이었다.

박은식 내각은 출범한 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법 개정이었다.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은 1925년 의정원 정기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정기의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의회가 개최된 후 3월 14일 崔錫淳·文一民·林得山·강경선·羅昌憲·金鉉九·郭憲 등의 연서로 된 ‘임시대통령이승만탄핵안’이 의정원에 제출되었다.⁴⁵⁾

대통령탄핵안이 제출되자, 의정원에서는 나창헌을 위원장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승만의 위법사실을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 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면서 ‘탄핵’이 ‘면직’으로 바뀌었고, 3월 23일 ‘임시대통령면직안’이 의정원의 결의로 통과되었다.⁴⁶⁾ 이로써 1919년 9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승만은 의정원에 의해 사실상 탄핵을 당하였다.

헌법도 개정하였다. 헌법을 개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 인한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기존의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이 국무원이나 의정원과 마찰을 빚게 되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제를 없애고 國務領制를 채택한 것이었다.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령’으로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고심이 있었다. ‘나라의 公僕’이라는 뜻에서 ‘國僕’이라고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짐작케 한다.⁴⁷⁾ ‘僕’은 잡일이나 천역에 종사하는 하인을 뜻하는 글자다. 행정수반의 명칭에 ‘僕’자를 넣자고 한 것은 대통령이란 이름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란 이름 대신에 국무령을 사용하였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뀌었다. 의정원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1925년 3월 30일 통과시키고, 4월 7일 개정헌법인 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하였다.⁴⁸⁾ 이에 의하면 국무령제는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함” “국무령이 국무회의를 대표한다.”고 하여, 국무령을 행정수반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대통령은 임기제한이 없었으나, 국무령은 3년으로 임기를 규정하였다.

3. 국무령 취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새로이 국무령제가 시행되었다. 국무령은 의정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

45)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549~550쪽.

46) 『獨立新聞』1925년 3월 23일자. 「審判書」.

47) 『獨立新聞』1925년 3월 23일자. 「臨時憲法改正에 就하여」.

48) 韓詩俊 편,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52~55쪽.

었다. 초대 국무령은 서간도에서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고 正義府의 실질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李相龍을 선출하였다. 임시정부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을 포괄하려는 배려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무령제는 쉽게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상룡은 1925년 9월 상해로 와서 국무령에 취임하였지만,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다음해 2월 국무령을 사임하고 만주로 돌아갔다.⁴⁹⁾ 이어 梁起鐸·安昌浩를 국무령으로 선출하였지만, 이들은 취임하지 않았다. 선출한 국무령이 취임하지 않자, 의정원은 국무령의 선출 방법을 달리하였다. 의정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바꾸어 국무령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를 만나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의정원에서 대상자로 홍진을 선정하였다. 당시 홍진은 鎭江에서 은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진을 국무령으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黨派에 기울여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시정부가 처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독립운동의 방안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다.⁵⁰⁾ 홍진은 진강에 은거해 있는 동안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독립운동 방안을 ‘痛忿과 絶望’이란 글로 정리하였다.⁵¹⁾ 그리고 독립신문이 이를 몇 차례 연재한 일이 있었다.

의정원에서는 崔昌植을 진강으로 보내, 홍진에게 국무령으로 선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취임을 설득하였다. 홍진은 국무령 제의를 받아들였다. 홍진은 자신이 수립한 것이나 다름없는 임시정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또 나름대로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 홍진은 2년여에 걸친 은거생활을 청산하고, 최창식과 함께 상해로 왔다.

의정원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홍진을 국무령으로 선출하였다. 그의 국무령 선출은 “임시 의정원은 民國 8년 7월 7일 즉 임시헌법개정시행 제1주년 기념일을 期하여 全員一致로 警寤 洪震氏를 國務領으로 선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⁵²⁾ 그가 국무령으로 선출된 1926년 7월 7일은 국무령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임시헌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홍진은 곧바로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선출된 다음 날인 7월 8일 의정원에서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홍진은 취임사를 통해 우선 현정국을 안정시키고, 독립운동을 “혁명적 원리에 근거하여 正軌로 突進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해 나갈 3대 政綱을 밝혔다.

49)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44호, 大韓民國8년(1926년) 12월 16일.

50) 홍진을 국무령으로 선정한 데 대해 “선생의 天性은 方正하나 包容이 크고, 強直하나 圓滿하며, 慷慨하며, 磊落하며, 堅忍하며, 또 가장 大義를 존중하며, 勢利에 지극히 澹泊하여 一毫의 野慾이 없는 介潔한 志士의 典型그대로인대, 더욱 見識이 透徹하고 사상이 탁월하며, 또 些毫의 黨派氣味가 없는 이다”라고 하고 있다.(『獨立新聞』 1926년 9월 3일자).

51)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121~123쪽.

52) 『獨立新聞』 1926년 9월 3일자. 「國務領選舉就任」.

1.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新運動을 촉진할 일.
2. 전민족을 망라하여 鞏固한 黨體를 조직할 일.
3. 전세계 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協同戰線을 조직하는 동시 에 또한 연락할만한 友邦
과 제휴할 일.⁵³⁾

홍진이 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것은 전 민족이 단결한 ‘政黨’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정당의 조직은 진장에서 구상한 ‘一定한 主義 政綱을 기초로 한 민족의 대결합’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었고, 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以黨治國의 방안이기도 했다.

홍진은 국무령에 취임한 후, 내각 구성에 착수하였다. 그는 지역적 안배를 통해 각과 연립내각을 구성한다는 방침하에 安昌浩의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8월 30일 崔昌植(내무)·趙素昂(외무)·李裕弼(재무)·金應燮(군무)·趙尙燮(사법)으로 정부를 조직하였다.⁵⁴⁾ 이로써 홍진을 국무령으로 한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였고, 임시정부가 희생하여 존속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홍진이 국무령에 취임하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전선에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의 유일한 정당을 조직하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홍진은 국무령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民族大黨體’의 조직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자신이 실행할 과제로 삼았다. 홍진은 각종 연설과 《독립신문》을 통해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分裂이고, 功能 중에서 가장 큰 공능은 結合”이라고 하면서, ‘민족대당’의 결성을 주장하였다.⁵⁵⁾

안창호도 홍진과 함께 ‘민족대당’을 주장하였다. 홍진이 국무령에 취임하며 ‘민족대당’을 주장하던 그 날 안창호는 연설회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대혁명당’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안창호는 북경으로 향했다. 북경은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의 집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안창호는 북경의 인사들을 만나 ‘홍진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 민족이 대단결한 ‘대독립당’을 조직하자고 하였다. 북경의 인사들도 이에 동의하였고, 1926년 10월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를 창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⁵⁶⁾

북경에서 축성회가 창립되면서, 상해에서 일어난 ‘유일당’을 조직하지는 바람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유일당을 조직하지는 바람은 북경에 이어 국내와 만주로 퍼져 나갔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지는 데 합의, 1927년 2월 新幹會를 결성하였다. 만주지역에도 유일당운동 바람이 불었다. 안창호가 吉林을 비롯하여 만주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일당 결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⁵⁷⁾

53) 『獨立新聞』 1926년 9월 3일자. 「國務領三條政綱」.

54) 『獨立新聞』 1926년 9월 3일자. 「國務員選任」「新政府成立」.

55) 『獨立新聞』 1926년 9월 3일자. 「洪領의 國恥演說」.

56)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253쪽.

57) 李明花, 『島山 安昌浩의 獨立運動과 統一路線』, 경인문화사, 2002, 278~280쪽.

홍진은 ‘유일당’을 조직하자는 바람이 국내외 독립운동전선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유일당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유일당’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또 그것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유일당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홍진은 1926년 12월 9일 국무령을 사임하였다.⁵⁸⁾

국무령을 사임한 홍진은 유일당운동에 매진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좌익세력의 대표자인 洪南杓와 협의하여, 좌우익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전민족의 유일한 독립당을 결성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기구로 1927년 4월 좌우익 세력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유일독립당상해축성회를 창립하였다.⁵⁹⁾ 이로써 북경과 상해에 유일당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창립되었고, 그것은 중국 각지로 확산되어 갔다. 유일당운동의 바람을 일으킨 홍진은 1928년 초 만주로 향했다. 이후 홍진은 1933년까지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IV. 임시의정원 의장

1. 임시정부로 복귀

홍진이 임시정부로 다시 복귀한 것은 1939년이였다. 1928년 만주로 떠났던 홍진은 그동안 북만주에서 李靑天·黃學秀 등과 韓國獨立黨(만주)을 조직하고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3년 중국관내로 이동한 후에도 新韓獨立黨·한국독립당(재건) 등 주로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홍진이 임시정부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임시정부가 綦江에 도착하여 정부의 조직을 확대할 때였다. 임시정부는 1932년 尹奉吉의거 직후 上海를 떠나 杭州로 옮겼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鎮江·長沙·廣州·柳州 등지를 거쳐 1939년 5월 綦江에 도착하였다. 비교적 전란으로부터 안정된 지역인 기강에 도착하면서, 임시정부는 정부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정부 조직의 확대 강화는 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9년 10월 기강에서 정기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930년대 중반 이래 金九의 韓國國民黨 중심으로 유지되던 임시정부에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 인사들을 의정원과 정부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추진한 것은 의정원 의원에 대한 보결선거였다. 이때 모두 18명의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홍진은 黃學秀·申桓(申建植)·李象萬·安勳 등과 함께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⁶⁰⁾

58)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45호, 1926년 12월 17일. 「國務籍選任及解任」.

59) 金喜坤, 「1920년대 임시정부의 협동전선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25쪽.

6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1), 2005, 301쪽.

의원에 선출된 직후, 홍진은 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10월 15일 회의에서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던 宋秉祚가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다음 날 16일 회의에서 의장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홍진이 의장에 당선된 것이다.⁶¹⁾ 이로써 홍진은 1922년 의장을 역임한 이래 두 번째로 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의정원 의장에 이어 정부의 국무위원과 내무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정원의 조직을 갖춘 이후, 정부의 조직도 확대 정비하였다. 이는 국무위원의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조직을 재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10월 23일 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임시약헌에 규정된 최대수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7명 외에 홍진을 비롯하여 趙素昂·李青天·柳東說 등 4명을 국무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내무장으로 선임되었다.

주 석 : 李東寧

내무장 : 洪震, 외무장 : 趙素昂, 군무장 : 李青天

참모장 : 柳東說, 법무장 : 李始榮, 재무장 : 金九

비서장 : 車利錫⁶²⁾

홍진은 국무위원과 내무장에 선임되면서,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의장은 국무위원을 겸직치 못한다.”는 ‘의장과 국무위원불겸직안’이란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홍진은 의정원 의장 사면청원안을 제출하였고, 11월 5일 후임으로 金朋濬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홍진이 국무위원과 내무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임시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은 韓國光復軍의 창설이었다. 광복군의 창설은 기강에 도착한 직후부터 추진하였고, 미주교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국정부를 상대로 광복군 창설에 따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면서 준비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홍진은 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에서 임시정부 대표로 訓辭를 하였다. 그는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메고 나섰다고 하면서, 광복군이 조국을 광복하는데 선봉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정부가 인민의 중탁을 받고 광복의 큰 짐을 진지라. 피가 아니면 왜적을 구축할 수 없으며 무력이 아니면 해방을 피할 수 없는지라. (중략) 여러 장령들은 이로써 스스로 명심하여 나라에 진 충하여 애오라지 공무사하여라. 용맹스럽게 나가라. 그리하여 왜놈을 못지르고 우리의 옛 나라를 광복하여라.⁶³⁾

6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1), 306쪽.

62)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65호, 大韓民國22년(1940년) 2월 1일.

63) 「洪震先生의 訓辭~임시정부를 대표」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 5일).

홍진은 조국의 광복은 무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북만주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활동할 때, 그 黨軍으로 韓國獨立軍을 조직하여 활동한 일이 있었다.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反滿抗日軍과 연합하여 북만주 일대에서 舒蘭縣전투· 雙城堡전투· 鏡泊湖전투· 四道河子전투· 東京城전투· 大甸子嶺전투 등, 일본군을 상대로 수많은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⁶⁴⁾ 이러한 경험을 가진 홍진은 광복군을 창설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고, 광복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광복해주기를 바랐다.

2. 통일의회 의장

임시정부가 重慶에 정착하여 활동할 때, 좌익진영의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당시 중국관내 독립운동전선에는 金元鳳이 주도하는 조선민족혁명당, 金星淑의 조선민족해방동맹, 柳子明의 조선혁명자연맹 등이 좌익진영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1942년 7월 무장세력인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켰고, 이어 의정원에도 참여하였다.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한 것은 1942년 10월 개최된 제34차 정기의회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원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정기의회 개최와 더불어 선거를 통해 모두 21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하였는데, 조선민족혁명당 10명을 비롯하여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혁명자연맹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되었다.⁶⁵⁾ 이 선거는 좌익진영을 참여시키기 위한 선거나 다름없었고, 새로 21명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재적의원 23명을 포함하여 의원 수가 44명에 이르렀다.

좌익진영이 참여하면서 의정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정원 개원 이래 의원 수가 가장 많았고, 좌우익진영의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통일의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부의장 崔東旻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모임은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성립 이래 최초로 盛旺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고, 趙素昂은 답사를 통해 “과거 무수한 방법의 대립, 과거 무수한 단체의 난립, 과거 각 당파의 대립이 의정원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며,⁶⁶⁾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의정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의원으로 구성된, 그리고 좌우인사들이 참여한 ‘통일의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의회였다.

홍진은 ‘통일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의 둘째 날인 10월 26일 새로이 선출된

64)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184~191.

65) 한시준, 「중경시대 임시정부와 통일전선운동」, 『쟁점 한국근현대사』 4, 1994, 132쪽.

6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5, 964~965쪽.

21명에 대한 자격심사에 이어, 의장 선출에 들어갔다. 44명의 의원 중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홍진이 33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 것이다.⁶⁷⁾ 이로써 홍진은 1922년과 193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홍진이 통일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독립운동의 元老리는 것과 더불어, 좌우 양진영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좌우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홍진 의장에 대해 좌익진영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평가가 그것을 말해준다.

홍진선생은 우리 혁명운동선상에서 年高德邵하신 元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일생을 통하여 民族統一事業에 忠實히 노력하여 왔고 또 특히 靑年들을 愛護指導하여 시대와 발맞추어 進歩한 방향으로 혁명운동을 추진하려고 건결히 奮闘하는 老戰士이었다. 이와 같은 洪선생으로 의장의 직무를 담임하게 한 것은 우리 의회의 幸이요 榮光이다. 뿐만 아니라 各 黨派의 幸이요 영광인 동시에 全民族의 幸이요 영광이다.⁶⁸⁾

홍진은 민족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좌익진영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좌익진영은 홍진을 일생을 통해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한 원로로서,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진은 이미 두 차례 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회는 예전 의정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되던 의정원이 多黨體制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임시정부의 기초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이 여당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의 단체들은 야당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당체제의 성립이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의회가 운영된 것은 한국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통일의회의 운영은 간단치 않았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야당측 의원들이 정부의 결정과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거나 비판하면서 정부와 야당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홍진은 이러한 통일의회를 운영하면서,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의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의원자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관철시키면서 통일의회를 이끌었다.

통일의회 개회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광복군행동9개준승’ 문제였다. ‘9개준승’은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강요한 것이었다. 통일의회가 개회되면서,

6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임시의정원2), 2005, 28~29쪽.

68) 『우리通話』 제2호(국사편찬위원회, 『中國內韓國近代關係資料』, 1988, 11~12쪽).

좌익진영의 의원들이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취소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홍진은 의장석에서 내려와 직접 논란에 참여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교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외교방법을 찾아 교섭하자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의정원의 후원에 힘입어 임시정부는 중국측에 취소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중국당국과 여러 차례 협상을 전개, 마침내 1944년 8월 중국측이 '9개준승'을 취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⁶⁹⁾

홍진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당파에 치우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신대로 진행하였다. 1943년 10월 개최된 제35차 의회에서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방식에 대해 여야가 무기명투표와 유기명투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였을 때, 홍진은 야당측 안에 동의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내렸다.⁷⁰⁾ 홍진의 당적은 한국독립당이었고 위상도 중앙집행위원이었다. 그렇지만 야당측이 주장하는 무기명투표에 동의한 것이다.

또 헌법을 개정하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좌익진영은 의정원에 참여한 이래 정부 조직에도 참여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선결과제였다. 여야의원들로 헌법개정을 위한 修改委員會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야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예한 대립을 보여, 헌법개정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홍진은 한국독립당을 탈당한 후, 막후교섭을 벌였다. 당적을 떠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1년 반 이상을 끌어오던 헌법개정문제가 타결되었다. 홍진은 1944년 4월 20일 제36차 임시의회를 소집하고, 개정헌법인 大韓民國臨時憲章을 탄생시켰다.⁷¹⁾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고, 이에 의해 의정원에서 정부를 조직하였다. 주석을 비롯하여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주석에는 한국독립당의 金九, 부주석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金奎植이 선출되었다. 이어 국무위원 14명을 선거하였다. 선출된 국무위원은 한국독립당에서 9명, 조선민족혁명당에서 3명,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무정부주의자총연맹에서 각각 1명씩이었다. 14명 중 5명이 좌익진영의 인사였다. 그리고 정부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문화·선전 등 7개 행정부서의 부서장을 선출하면서, 좌익진영 인사인 金元鳳과 崔錫淳을 각각 군무부장과 문화부장에 선출하였다.⁷²⁾

이로써 임시정부는 좌우익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좌우연합정부는 1944년 4월 26일 주석과 부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의장 홍진을 監誓人으로 하여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⁷³⁾ 좌우익 세력이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은 두 번

69) 韓詩俊, 『韓國光復軍 研究』, 일조각, 1993, 124~132쪽.

70)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2, 연세대 출판부, 1975, 235쪽.

7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3), 3~7쪽.

72)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81호, 大韓民國26년(1944년) 6월 6일.

째였다. 첫 번째는 1919년 9월 노령·상해·한성의 세 임시정부가 통합한 것이었다. 이에 이어 25년 만에 좌우의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로 결집하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좌우연합정부의 구성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거둔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였다. 항일독립운동의 한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일이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성과로 1927년 국내에서 新幹會가 결성되기도 하였고, 1935년에는 5개 정당이 통일을 이루어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1944년에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이면서, 독립운동 중추기구라는 위상을 되찾게 되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환국 후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은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환국하였다. 그는 제2진으로 1945년 12월 2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당시 38선 이남은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었고, 임시정부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들어와야 했다. 들어올 때는 개인자격이었지만, 임시정부는 환국 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國字포고’를 발표하는 등 정부로 역할하려고 하였다.⁷⁴⁾ 그러나 미군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過渡政權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45년 9월 3일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수행할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과도정권에 임시정부를 인계한다는 것이었다.⁷⁵⁾ 그러나 ‘國字포고’를 계기로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협력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해체를 추진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정부로 활동하는 것이 좌절되면서, 非常政治會議 소집을 제창하였다. 1946년 1월 4일 김구는 “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신속히 강고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 각 혁명 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 저명한 민주영수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것이다.⁷⁶⁾ 그러나 임시정부의 확대 강화를 꾀한다고 생각한 좌익진영이 반대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임시정부는 단독으로 비상정치회의 소집을 추진하였다. 1946년 1월 20일 각계 대표 21명을 소집하여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참여한 데

73) 국회도서관,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1974, 435~437쪽.

74) 1945년 12월 31일 임시정부 내무부장 명의로 ‘國字포고’ 제1호와 제2호가 발표되었다. 이는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 임시정부 지휘 하에 예속케 함”이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국사편찬위원회, 『資料 大韓民國史』 1, 1968, 722~723쪽).

7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 5, 대한매일신보사, 1999, 670~671쪽.

76) 『서울신문』 1946년 1월 5일자. 「非常政治會議를 즉시 소집하자」.

대해 임시정부내의 좌익진영 인사들인 金元鳳·張建相·成周憲·金星淑 등이 의심을 갖고, 또 좌익진영이 참가하지 않는 단결은 비민주적이라며 주비회를 탈퇴하였다.⁷⁷⁾ 이들이 탈퇴하면서, 1944년 중경에서 이루어진 좌우연합정부는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 명칭은 非常國民會議였고, 1946년 2월 1일 각계 인사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의 천주교회당에서 비상국민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회에서는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최고정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결의되었고, 이어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에 홍진과 최동오를 추대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었다.⁷⁸⁾ 홍진과 최동오는 중경시기에 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이었다.

홍진은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였던 그가 27년이 지난 후 다시 정부를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홍진은 취임사를 통해 비상국민회의를 ‘3천만 여론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정식 국회의 전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신국가를 건설하자고 하였다.⁷⁹⁾ 그리고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또 여러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단결하자는 것을 당부하였다.

홍진은 비상국민회의를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기구로 이끌어갔다. 본부는 창덕궁 仁政殿에 두었다. 그리고 고창일과 장덕수 의원을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 “조선의 무조건 독립과 정치·경제·문화·교통 등의 필요로 하루바삐 38도선을 철폐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토록 하였다.⁸⁰⁾ 미소공동위원회에 무조건 독립과 38선의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국의 주도권은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었고,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에 임시정권을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민족 내부적인 문제도 간단치 않았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별도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었다.

홍진은 내부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도정권이고 신국가 건설이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그는 유일당운동을 전개한 일도 있었고, 정당을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던 경험도 풍부했다. 홍진은 내부적인 통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상호의 정치적 합작’을 강조하였다.⁸¹⁾

홍진은 이를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조선공산당의 洪南杓를 만나 좌우합작을 종용한 것

77) 李庸起, 「1945~48년 臨政勢力的 정부수립 구상과 臨政法統論」, 『韓國史論』 38, 1997, 189쪽.

78) 『서울신문』 1946년 2월 1일자. 「非常國民會議 開幕」.

79) 『서울신문』 1946년 2월 6일자.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 취임사」.

80) 『서울신문』 1946년 2월 5일자.

81) 『서울신문』 1946년 4월 14일자. 「內部相互의 政治的 合作~非常國民會議長 洪震氏 會見談」.

이다. 홍남표와는 1926년 상해에서 좌우세력이 통일을 이루어 유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이룬 적이 있었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5월부터 金奎植과 呂運亨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홍진은 비상국민회의 내에서 한국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金奎植·元世勳·金朋濬·安在鴻·崔東昨 등 5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토록 하였다.⁸²⁾

홍진은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 병마 때문이었다. 심장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홍진은 끝내 병원문을 나서지 못하고, 1946년 9월 9일 숨을 거두었다. 향년 70세였다.

V. 맺 음 말

홍진은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품에 안고 상해로 망명한 이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행정수반인 국무령을, 의정원에서는 세 번에 걸쳐 의장을 맡으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어 수립된 임시정부는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였다. 한성정부를 수립한 인물이 홍진이었다. 홍진은 3·1운동 직후 이규갑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기독교·유교·천도교를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13도대표자대회를 통해 한성정부를 수립하였다.

홍진은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상해로 가지고 갔다. 이후 한성정부는 노령과 상해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13도대표자대회를 거쳐, 즉 국민적 기반위에 수립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 노령·상해·한성의 세 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탄생시킬 때, 한성정부를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성정부에 정통성을 두었다는 말이고, 한성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뿌리가 된 것이라 하겠다. 그 한성정부를 수립한 것이 홍진이었다. 이로 보면 홍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產婆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홍진은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인 국무령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었다. 1919년 9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문제와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불신임을 받았고, 결국 1925년 3월 의정원에서 탄핵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을 없애고,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령으로 바꾸었다. 홍

82) 鄭秉峻, 「1946~1947년 左右合作運動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韓國史論』 29, 1993, 263~264쪽.

진은 1926년 7월 의정원에서 국무령으로 선출되었고, 그해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국무령으로 활동하였다.

홍진은 입법기구인 임시의정원에서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세 차례였다. 1922년, 1939년, 1942년 세 번에 걸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1942년의 의정원은 좌익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통일의회로 구성되었다. 홍진이 통일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의장으로 의정원을 이끌었다.

통일의회는 이전의 의정원과 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일당체제로 운영되다가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 등을 비롯한 여러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다당체제였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다당체제와 여야로 구성된 의회였다. 홍진은 의장으로 통일의회를 운영하면서, 한국역사에서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켰다.

홍진은 해방 후 국내로 환국한 이후에도 의정원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환국 후 의정원은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로 명칭을 바꾸었다. 홍진은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그해 9월 9일 숨을 거둘 때까지 의장을 맡았다. 비상국민회의는 홍진 자신이 ‘정식 국회의 전신’이라고 하였듯이,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구였다. 홍진은 의장으로 과도정권 수립과 신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였지만,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국가 건설의 꿈을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갔다.

임시정부 27년 동안 임시정부의 행정수반과 입법기구인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인물은 홍진뿐이다. 홍진은 임시정부에서 행정수반인 국무령으로, 또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에서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경우는 홍진이 유일하다. 홍진은 이를 통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로, 또 한국역사에서 처음으로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였다.

[논문접수:2009.09.01, 심사시작:2009.09.02, 심사완료:2009.10.13]

주제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정당 정치, 의회 민주주의

<ABSTRACT>

The diplomatic works of Shin Kyu-sik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Han, See-Jun

Shin Kyu-sik was the one who laid a cornerston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was fluent in the Chinese language and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revolutionists ever since he experienced the torrent of the 1911 Revolution. If it were not for his support with his abi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ould have been much more harder.

When the president Lee Seung-man arrived in Shanghai, Shin Kyu-sik put away his life in sickbed and rejoined the government. However, as president Lee failed to settle the pending problems of the government and finally left Shanghai never to come back, Shin Kyu-sik came up for the right man cover the absence of president. He was given two major tasks. One was to settle down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of KPG. The other was to make a request to Chinese Canton Government for cooperation in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President Lee himself appointed Shin Kyu-sik as the right man to fulfill the task.

Shin Kyu-sik expected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for the KPG to cope with the problem it was facing if he could secure the cooperation of the Chinese Canton Government. In the capacity of Prime Minister, concurrent with Minister of Justice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in Kyu-sik made a visit to Sun Wen. Shin Kyu-sik requested Sun Wen for recognition of KPG and joint action in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Sun Wen consented to Shin's request and made de facto recognition of KPG. Those were the great achievements Shin Kyu-sik's diplomacy has brought about.

However,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didn't pay attention to the works and petition of the KPG eventually. The diplomatic environment turned unfriendly to KPG, and Shin Kyu-sik quickly became weak and finally deceased of his chronic illness.

The diplomatic work of Shin Kyu-sik for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was the final task he had carried out. Though he worked with Lee Seung-man, it would be improper to classify them as figures of a kind. Lee Seung-man kept disregard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finally was impeached by the Provisional Parliament in 1925. On the Contrary, Shin Kyu-sik was desperate saving the KPG until he ended up his last breath. He had sacrificed his whole life for the peace and better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society of independence activists. The remark upon his death as "killing himself for his

country" in a Chinese newspaper would be a relevant judgement.

key word :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executive, party politics, parliamentary democracy